

動 向 分 析

經濟一般

● 설비투자 증가 등 경기회복의 질 개선 : 9.8% 성장

1999년 2/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수출도 신장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9.8%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v자형의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5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1998p		1999p		
	2/4	상반기	1/4	2/4	상반기
경제성장률	-7.2	-5.5	4.6	9.8	7.3
산업	-6.8	-4.8	4.7	10.4	7.6
제조업	-10.4	-7.6	10.7	20.1	15.5
건설업	-6.6	-5.4	-14.7	-7.9	-10.9
서비스업 ¹⁾	-7.4	-6.0	6.5	10.4	8.4
최종소비지출	-9.7	-9.0	5.0	7.2	6.1
민간	-11.2	-10.6	6.2	9.0	7.6
정부	-0.7	0.3	-1.7	-2.6	-2.2
총고정자본형성	-23.7	-22.3	-4.3	4.9	0.6
건설	-7.8	-6.9	-13.7	-8.5	-10.8
설비	-46.1	-42.4	12.9	37.2	24.8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3.2	18.9	11.9	16.0	14.0
(상품) ²⁾	16.5	21.4	12.7	18.8	15.9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25.5	-26.3	27.4	27.4	27.4
(상품) ²⁾	-27.3	-27.5	26.3	31.4	29.0

주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며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2) f.o.b. 기준.

3) p는 잠정치임.

1999년 1/4분기 이후 경제성장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데는 전년의 경기침체에 대한 상대적인 반등의 영향뿐 아니라 성장의 질적인 측면도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번 분기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국내외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내용면에서도 민간소비 증가(9.0%)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추진력이 되는 설비투자가 증가(37.2%)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지난 1/4분기의 상황과는 다르게 건설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분기에는 민간소비(6.2%)와 재고조정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산업생산이 내수호조와 수출물량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은 중화학공업 생산이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요의 호조로 24% 성장을 하였으며, 경공업 생산도 증가세(6.8%)로 반전되어 제조업 전체 20.1%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은 통신업이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다가 도소매업 호조, 증시활황에 힘입어 10.4% 성장을 보였다.

반면 건설업은 정부건설은 도시토목, 상하수도 및 공항건설 등이 늘어나 16.4% 증가하였으나 민간건설이 부진하여 전체로는 7.9%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난 분기에 비해 감소폭은 축소되었다.

● 민간소비 및 기계류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1999년 2/4분기 최종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가계소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설비투자는 1999년 2/4분기에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향후 산업기반이 되는 기계류 전반에 대한 투자가 확대(32.3%)되어 전년동기대비 37.2% 증가를 보였다.

한편 재고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산물재고가 감소한데다 생산자 제품재고도 줄어들어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저점에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재고가 줄어들지만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면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고를 다시 늘리게 된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난 1999년 2/4분기에도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1) 생산자 제품재고 추세를 보면, 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9.4%, 5월에는 -18.0%, 6월에는 -16.7%, 7월에는 -15.2%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 물량기준의 수출입 모두 증가 지속

1999년 2/4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16.0%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1/4분기와 마찬가지로 27.4%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 상품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증가세가 확대된데다가 섬유, 의복, 가구 등 경공업제품도 증가로 반전하여 18.8% 증가하였다.

한편 수입 중 상품수입은 컴퓨터, 통신장비 등 자본재와 철강, 산업용화학물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다 음식료품, 섬유 등 소비재 수입도 늘어나 31.4%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입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10.4% 증가하였다.

●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는 안정적

1999년 2/4분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0.6% 상승에 그치고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3% 하락하여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는 전년동기에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급격히 상승하였던 물가가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안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공산품 가격이 전년동기에 비해 하락하였던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2>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1995 = 100, %)

	1998		1999		
	2/4	상반기	1/4	2/4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	117.8 (8.2)	117.7 (8.6)	118.3 (0.7)	118.5 (0.6)	118.4 (0.6)
생산자물가지수	121.2 (13.9)	121.2 (14.1)	117.0 (-3.5)	117.2 (-3.3)	117.1 (-3.4)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